

# CURE & CARE

## 닥터, 최현일



정리 이종원


**W** 월드뷰에 매달 연재 해주시는 칼럼을 잘 읽고 있습니다. 처음에 글을 쓰시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있나요?



13년전에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대학교(이하 VIEW)에서 기독교세계관을 공부한 이후 제가 의학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예전에 교과서에서 공부한 것들이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니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배운 의학을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진료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생각들을 가끔씩 정리만 했지 체계적으로 다듬어 보는 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월드뷰에서 메디컬 칼럼을 제안 해 주셨고, 이 칼럼을 쓰면서 그동안의 생각의 조각들을 하나로 묶는 기초작업을 소프트하게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최근 몇 년간 몸과 마음과 세계관(Body-Mind-Worldview)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며 제 자신의 몸과, 저에게 오시는 환자분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의 선물인지를 경험하고 있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W** 기독교세계관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따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6년 전 어느 날 예배드리려고 교회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배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그땐 왜 그랬는지 몰랐죠. 나중에 알았지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꿈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의과대학의 교수라는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VI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집공고내용에 제 의문점들이 다 적혀있더라고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의학 공부와 내 신앙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때 결심이 섰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만두더라도 VIEW에서 말하는 걸 내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밴쿠버행을 결심했습니다.

기독교세계관을 공부하면서 저의 무더져있던 영혼과 생각이 중환자실 환자가 깨어나듯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떤 관점과 어떤 생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또 사람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학문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복합적인 질문들에 조금씩 대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문을 바라보는 틀도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관점, 창조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W** 건강, 몸에 대해 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독교세계관적으로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데카르트 이전에는 서양에서도 몸과 마음을 하나로 봤어요. 그런데 데카르트의 세계관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 생각하게 되었죠. 그 결과 서양 의학은 몸을 객체화시키고 머리, 가슴, 팔, 다리 모두 나눠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 분석 방법은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하나의 통합적 실체이기 때문에 분석적인 개념만으로는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양의학의 주류에서도 몸과 마음이 서로 통합적으로 연결된 실체라는 것을 과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증명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비전이나  
직업의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해서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청지기적 삶의 핵심은 책임감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모두 설명한 후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지요. 저는 바울이 몸을 먼저 언급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현대의학은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고 또,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수님 역시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육체가 얼마나 완벽한 창조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선물인 우리 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맛있다고 먹고, 편안하다고 가만히 있고- 세상의 방식을 따


라합니다. 세계관적으로 건강이라는 것은 세상에 물 들고 성찰 없이 따라갔던 나의 생활습관과 사고방식을 돌이켜서 창조의 몸과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비전이나 직업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해서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지기적 삶의 핵심은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몸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은 영어의 Responsibility죠. 이 단어는 Response와 Ability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내 몸에 대해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몸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일해야 하는지, 쉬어야 하는지, 등등 내 몸에 대해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감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내 몸과 나를 알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자기가 조절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몸을 의사한테 맡겨요. 내 몸의 주체가 내가 아닌 의사인 것이죠. 저는 의사이지만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내 몸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건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멋지게 지어 주신 몸,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생각 없이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은 힘들겠지만요. 하지만 창조해 주신 상태로 돌아가겠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이 세상 속에서도 많은 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나라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지요.



**W** 마지막으로 월드뷰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오늘'에 대한 생각과 각오를 새롭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삶의 방식을 취하면 내일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인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오늘 생각하는 것의 96%는 어제 생각했던 것들이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연구한바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되는 것은 내일도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오늘 안되는 것은 내일도 안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앞으로 남아 있는 나머지 내 인생의 첫 번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작해서 삶이 다할 때 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마음을 정하고-오늘 건강한 습

관을 실천하며 살겠다-결심하고, 그냥 살아가는 몸이 아니라 위대한 창조의 실체인 몸으로 살아간다는 청지기적 사명의식을 날마다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몸과 마음에 대한 "Creation Regained"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